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오 경 자[†] 박 규 리 오 서 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귀국한 대학생의 한국 사회에의 재적응과정에서 문화정체감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귀국대학생 181명(남 61명, 여 121명)과 일반대학생 185명(남 92명, 여 93명)에게 문화적응양상, 정체감, 대학생활적응, 외로움 및 우울을 자기보고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귀국대학생들은 일반대학생들에 비하여 학업 등 대학생활적응 및 우울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로움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귀국대학생들을 한국 및 거주했던 외국문화에의 적응을 기준으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가지 적응유형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통합과 동화 유형이 주변화 유형에 비하여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높았고 우울과 외로움의 수준도 낮았다. 한국과 해외거주국의 문화에서 모두 소외된 주변화 유형은 적응의 전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취약집단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귀국 대학생, 문화 적응, 정체감, 심리사회적 적응

* 이 논문은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ERP과제 번호: 7-2008-0263).

† 교신저자 : 오경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2441, E-mail : kjoh@yonsei.ac.kr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면서 문화권간의 이동과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응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 결혼, 탈북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이주민의 규모도 현재 114만 명으로 현재 총 인구대비 2%를 초과하고 있다(법무부, 2008). 또한 직장으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주재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해마다 많은 수의 유학생과 연수생들이 출국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해왔던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문화와의 접촉의 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간 접촉과 문화적응의 과정과 그 결과,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문화적응집단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신행우, 이종한, 한성열, 허태균, 채정민, 2004; 정태연, 김영만, 2004; 이재창, 김영만, 2005; 채정민, 한성열, 2003), 그리고 이들의 남한사회에의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정진경, 조정아, 2008; 채정민, 김종남, 2008)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래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수효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

최근에는 부모의 해외 근무 및 조기 유학 등의 사유로 성장기의 상당기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귀국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귀국청소년들은 해외거주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갖출 수 있으나, 동시에 심리적 정체감형성 등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게 됨으로서 문화 정체감 형성 등에서 독특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귀국청소년들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이들의 귀국 후 언어와 학업, 교우관계, 교사 관계 등 학업적응측면에서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고(권선미, 1997; 김미경, 1999; 김충희, 1996), 이들의 문화권간 이동 경험에 따른 문화정체감과 심리적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귀국청소년들과 같이 성장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문화적 환경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Third Culture Kids/Trans Culture Kids(이하 TCK: Pollock & Van Reken, 2009; Useem & Downie, 1976)', 혹은 'Global Nomad(McLachlan, 2007)'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어 왔다. TCK 청소년 연구는 주로 군인, 외교관, 선교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주재하게 된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최근 국가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직업군의 자녀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TCK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정체성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등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Adler, 1975),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Goodman, 1990). 그러나 이와 동시에 TCK 청소년들은 하나의 문화권에서 성장과정을 거치는 일반 청소년들과는 달리,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소속된 특정 문화에 소속감을 느

끼기 보다는 다른 문화적 배경의 TCK 집단과의 공감대를 느끼는 등 그 문화적 정체성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Pollock et al., 2009). 최근 서구의 연구에서는 TCK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로 인하여 귀국 후 재적응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Fail, Thompson, & Walker, 2004; Fry, 2007; Pollock et al., 2009). 그러나 TCK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 및 이러한 갈등이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문화적 정체감은 자신을 한 문화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범주화시키고 동일시하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정진경, 양계민, 2004), 새로운 문화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적응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자신이 특정 문화집단과 동일시하여 그 집단의 문화정체감을 지니게 되면 그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그 사회에서의 적응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민자 집단의 경우, 젊은 층이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하여 더 쉽게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Marin, Sabogal, Martin, Otero-Sabogal, & Perez-Stable, 1987),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빨리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Ghaffarian, 1987).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빨리 현지문화의 정체성을 획득한다(Suinn, Ahuna, & Khoo, 1992). 반면 본국의 문화와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혹은 두 가지 정체감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

게 된다. 서구의 TCK 집단과 우리나라의 귀국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국가와 성장과정에서 접하게 된 해외 거주국의 문화와 가치 사이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이들의 심리적 정체감 형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Berry(1980, 1990, 1997)는 이민 등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게 된 집단의 문화적응 유형을 1)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와 2) 새로운 문화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두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Integration)’, 둘째, 자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동화(Assimilation)’, 셋째,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Separation)’, 그리고 넷째,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유형이다. Berry의 문화적응 모델은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이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과정을 넘어서 자국의 문화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정체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erry의 문화적응 유형은 문화권간 이동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이 통합을 가장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am & Berry, 1995). Zheng, Sang과 Wang(2004)이 호주의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

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국문화유지와 거주국문화 수용이 모두 주관적 행복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세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에 유학중인 중국유학생들의 초기 적응을 조사한 송원영과 리난(2008)의 연구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모두 유지·수용하는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집단이 가장 적응이 우수했으며 양국의 문화와 모두 거리를 두는 분리 및 주변화 전략을 사용하는 집단이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편 미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동양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Hwang과 Ting(2008)의 연구에서는 미국문화에의 문화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한 심리적 적응수준을 보였으나, 자국 문화의 유지정도는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응유형과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성장경험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과정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본국문화에 재적응하는 과정이 처음 새로운 문화에 접하는 이민자나 유학생의 문화적응과정과 동일한 틀로 설명될 수 있는지는 흥미로운 연구문제이다. 서구의 TCK 청소년 연구에서는 이들이 특정문화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정체감 갈등으로 인하여 귀국 후 재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Failet al., 2004; Fry, 2007; Pollock et al., 2009), 이들이 경험하는 정체감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 및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특히 이들이 복합적 문화적 정체감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

하느냐에 따라 귀국 후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상당한 개인차이가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귀국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두 가지 문화정체감 사이에서의 갈등을 경험한 상태이므로 이들이 귀국 후 재적응과정에서 부딪치는 과제는 새로운 문화에 처음 접한 이민자 및 유학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귀국 후 재적응과정에서도 두 문화정체감과의 관계정립이 그 핵심이라는 점에서 Berry(1980, 1990, 1997)가 제안한 네 가지 문화적응유형은 귀국 청소년들의 문화재적응과정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설명에도 유용한 개념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에 장기간 해외 거주 후 귀국하여 국내대학교에 진학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적응의 양상과 함께 문화정체감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문화적응과 정체감의 양상은 한국과 해외거주국의 문화에 대한 적응/수용정도와 함께 각 문화에 대한 태도를, 심리사회적 적응은 대학생활전반에 대한 적응과 함께 외로움, 우울 등의 정서적 측면과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문화적응 및 정체감의 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Berry (1980, 1990, 1997)가 제안한 바에 따라 통합유형이 동화나 분리에 비하여 심리적 적응이 양호할 것이며 주변화 유형의 적응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귀국학생(181명; 남자 60명, 여자 121명)과 일반학생(185명; 남자 92명, 여자 9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귀국대학생 참여자는 현재 한국국적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외에 거주했던 총 기간이 5년 이상이며 한국어 혹은 영어로 설문지 응답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내 게시판을 이용한 참가자 모집 광고 및 학내 귀국학생 학사지도교수의 지원을 통한 이메일 공고, 그리고 귀국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경로를 통하여 자원자를 모집하였다. 5년 이상의 해외거주를 귀국대학생집단에의 포함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어학연수 및 교환학생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단기적 해외경험과 명확히 차별화될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해외거주경험집단을 표집하기 위함이었다.

귀국대학생들과의 비교를 위한 일반학생 참여자는 해외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없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해외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단기적 해외 경험은 일반대학생집단 185명 중 133명에 해당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어, 그 유무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귀국대학생집단과 일반대학생집단의 연령, 성비와 부모의 교육수준, 그리고 귀국대학생집단의 해외거주 기간 및 거주국가수, 그리고 최근 귀국 후 국내거주기간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귀국대학생집단은 평균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으며 최근 귀국 후 평균 4.79년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외거주경험의 영향이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기, 아동기(6-12세)와 청소년기(12세 이후)로 구분하여 각각 해외거주기간을 조사한 결과, 6세 이전의 해외거주기간은 평균 2.06년, 6-12세 사이의 해외거주기간은 평균 3.79년, 12세 이

표 1. 연구 참여 대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귀국 대학생(<i>n</i> = 181)	일반대학생(<i>n</i> = 185)	<i>t</i> / <i>x</i> ²
연령	21.43(2.27)	21.24(2.45)	.79
성비(남:여)	60:121	92:93	10.36**
부 교육수준(고졸/대졸/대학원졸)	10/93/78	54/85/46	38.83**
모 교육수준(고졸/대졸/대학원졸)	28/120/33	76/85/24	29.51**
총 해외거주기간	10.36(4.28)		
6세 미만	2.06(2.21)		
6세 이상 12세 미만	3.79(2.13)		
12세 이후	4.50(2.70)		
거주국가수(한국 제외)	1.55(.94)		
최근 귀국 후 기간(년)	4.79(3.94)		

***p* < .01

후의 해외거주기간은 평균 4.50년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외에서 거주했던 국가는 평균 1.55개로 전체의 36%가 하나 이상의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귀국대학생집단이 거주했던 외국은(거주한 국가가 하나 이상인 경우 가장 본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국가를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이 42.54% (동남아 17.13%, 중국 13.26%, 일본 4.42% 등)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북미(25.97%), 유럽(12.16%), 기타(중동 3.32%, 남미 2.77%, 아프리카 2.77% 등)순이었다. 귀국 대학생 집단의 87.4%가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현재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는 각각 60.1%, 50.9%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귀국대학생 집단과의 비교를 위하여 표집된 일반 대학생 집단은 평균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귀국대학생집단이 일반대학생집단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여성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측정도구

문화적응

한국과 외국의 문화에 대한 적응정도는 Ward와 Kennedy(1994)가 개발한 Acculturation Index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Acculturation Index는 가치관, 생활습관, 음식, 여가활동 등 21개 문항에 대하여 자국과 체류국의 문화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6점 척도(1=전혀 비슷하지 않다, 6=아주 비슷하다)로 평가하여 자국과 체류국의 문화에의 적응 혹은 동화 정도를 반영하는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 등 본 연구의 대상에 직접적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 일부 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Acculturation Index의 내적합치도는 자국문화적응 척도 .91-.94, 체류국 문화적응척도 .89-.97로 보고되어 있다(Ward & Kennedy, 1994; Ward & Rana-Deuba, 1999). 본 연구에서 한국 문화적응척도와 체류국 문화적응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91, .90이었다.

문화정체성

귀국 청소년들의 문화정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bbreviated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Zea, Asner-Self, Birman, & Buki, 2003)과 American Identity Questionnaire(Phinney & Devich-Navarro, 1997)를 참고하여 정체성, 의사소통능력, 문화지식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된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문화정체성 척도는 한국어로 개발된 문항들을 이중언어자인 연구자가 영어로 번역하고 역번역을 거쳐서 의미동등성을 확인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정체성 하위척도는 “내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한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 6개 문항, 문화지식 하위척도에서는 한국의 국가적 영웅, 역사, TV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각된 지식 수준을 묻는 6개 문항 등 총 12개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하위척도에서는 한국어로 말하는 능력과 듣고 이해하는 정도를 묻는 9개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1=전혀 못한다, 4=매우 잘한다)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에서 거주한 국가에 대한 문화정체성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정체성 6개 문항, 문화지식 6개 문항 등 총 12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문화정체성 척도에서는 한국과 해외 거주국에 대해서 각각 정체성과 본인이 지각한 문화지식에 대해

여 평가하는 총 4개의 문화정체성 점수가 산출되었고, 추가로 본인이 지각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국가정체성 하위척도(한국 .83, 거주국 .90), 문화지식(한국 .79, 거주국 .88),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94이었다.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에서의 전반적 적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aker과 Siryk(1999)이 제작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아직 1999년 판이 개발되지 않아 1989년 판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양현정, 2002), 기존의 한국어판(현진원, 1992)에서 변경된 부분만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척도는 총 67 문항에 대하여, 9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이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하여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학업적 적응, 대인관계나 수업 외 활동과 같은 생활에 적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적응,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심리정서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정서적 적응,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를 측정하는 대학 만족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척도 .92, 학업적 적응척도 .85, 사회적 적응척도 .83, 개인-정서적 적응척도 .81, 그리고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79이었다.

외로움

본인이 지각하는 외로움을 평가하기 위하여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Russel, Peplau, &

Cuttrona, 1980)이 사용하였다.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은 20개의 문항에 대해서 4점 척도(1=전혀 아니다, 4=자주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친밀한 주변인(Intimate Others), 사회적 주변인(Social Others), 소속감(Belonging and Affiliation)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옥수(1997)에 의해서 번역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판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보고되어 있다(김옥수, 1997).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0이었다.

우울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Radloff, 1977)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현재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총 20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0=극히 드물게 그랬다, 3=거의 대부분 그랬다)로 답하도록 되어 있어 총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으로 해석되며 우울집단의 절단점(cut-off score)은 16점으로 알려져 있다. Radloff(1977)는 CES-D의 내적합치도를 .85로 보고하였으며 국내의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9이었다.

삶의 질

WHOQOL-BREF(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는 WHO에서 여러 문화에서의 삶의 질을 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WHOQOL-100의 단축형으로 총 26문항을 5점

척도(1=아주 나쁨, 5=매우 양호함)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전반적인 삶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에 관하여 묻는 2개 문항과 신체건강(7문항), 심리적 건강(6문항), 사회적 관계(3문항), 환경(8문항)의 네 영역에 관한 문항 총 2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판 원척도(The WHOQOL Group, 1998)와 함께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2000)에 의해서 개발된 한국판 척도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8, 신체건강척도 .74, 심리적 건강척도 .81, 사회적 관계척도 .58, 환경척도 .79이었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연구 참여자들은 약 40-50분의 시간동안 설문지에 응답하고 난 후 course credit 혹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례로 지급 받았다. 귀국학생 참여자는 서로 같은 문항들로 구성된 한국어 설문지와 영어 설문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 귀국학생 참여자 181명 중 116명(64.1%)이 한국어 설문지로, 65명(35.9%)이 영어 설문지로 응답하였다. 예비분석에서 한국어설문지와 영어설문지로 답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총 해외거주기간, 최근 귀국 후 기간, 한국어 능력 등 제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총 해외거주기간 $t(179) = 1.39, p = .165$; 최근 귀국 후 기간 $t(179) = -.96, p = .339$; 한국어능력 $t(179) = -.32, p = .751$.

자료의 분석은 귀국대학생집단의 문화적 정체감 양상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해외거주기간, 최근 귀국후 국내거주기간의 상관관계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이

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일반대학생집단과 비교하였다. 귀국대학생집단과 일반대학생집단이 부모의 교육수준과 성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향후 두 집단 비교에서 위의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귀국청소년집단을 문화적응척도의 점수에 따라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비교하였다. 종속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문화적응양상을 평가한 변인들과 심리사회적 적응지표를 평가한 변인들을 각각 묶어서 다변인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에 대해서 단변량분석 및 사후검증(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귀국 대학생 집단의 문화적응 양상

귀국 대학생집단이 스스로 평가한 한국 및 해외 거주국에 대한 문화 적응 양상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귀국대학생 집단의 문화적응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과 해외거주국에 대한 문화지식, 정체감, 문화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혼합 다변량분석(Mixed M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179) = 1.61, p = .206$, 국가의 주효과 및 국가×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79) = 68.65, p < .01$; $F(1, 179) = 7.13, p < .01$. 이에 따라 각 문화적응지표에 대하여 혼합 변량분석(Mixed ANOVA)을 실시한 결과, 문화지

표 2. 귀국대학생($n = 181$)의 한국-거주국 간 문화지식, 정체감, 문화적응 비교

	남($n = 60$)	여($n = 121$)	성별 F	국가 F	성별×국가 F
문화지식-한국	19.58(3.35)	19.20(3.39)	4.80*	49.08**	10.72**
문화지식-거주국	15.23(4.17)	17.34(4.82)			
정체감-한국	18.58(3.59)	18.87(3.92)	6.80*	248.30**	3.51
정체감-거주국	9.79(3.53)	11.74(4.46)			
문화적응-한국	87.35(14.65)	82.89(16.19)	.03	27.36**	4.94*
문화적응-거주국	71.46(15.86)	76.47(15.56)			

주. 일반대학생의 한국에 대한 문화지식과 정체감의 남/여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19.33(2.79)/18.87(2.32), 17.45(2.69)/17.13(2.36)이었음.

* $p < .05$, ** $p < .01$

식에서는 성별과 국가(해외거주국/한국)의 주 효과와 성별×국가의 상호작용이, 정체감에서는 성별과 국가의 주효과가, 그리고 문화적응에서는 국가와 성별×국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귀국대학생집단은 자신의 현재 생활습관, 가치관, 여가활동 등이 해외에 거주했던 국가보다는 우리나라 문화와 더 유사하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F(1, 179) = 27.36, p < .01$. 스스로 평가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문화정체감 평가도 해외거주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 및 정체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F(1, 179) = 49.08, p < .01$; $F(1, 179) = 248.30, p < .01$. 참고로 이들은 스스로 평가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은 일반대학생집단과 비교할 때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364) = .50, p = .504$, 자신이 평가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은 귀국 청소년집단이 일반대학생집단보다 도리어 더 긍정적이었다, $t(364) = 4.22, p < .01$. 한국 문화지식 및 정체감에서는 남녀학생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해외거주국의 문화지식 및 문화적응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

여 높은 수준을 보여 해외거주국 문화에의 동화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지식 $F(1, 179) = 8.02, p < .01$; 문화적응, $F(1, 179) = 8.31, p < .01$.

귀국 대학생들의 해외거주기간 및 최근 귀국 후 국내거주기간과 한국어능력, 문화적응, 문화지식, 정체감의 상관관계와 해외 거주지역에 따른 문화적응양상을 알아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예상했던 대로 귀국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한국어 구사능력은 총 해외거주기간과 $r = -.43(p < .01)$ 의 부적 상관이 있었고, 최근 귀국 후 국내거주기간과는 $r = .23(p < .01)$ 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발달단계별 해외거주기간을 나누어보았을 때,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해외거주기간과 한국어구사능력의 상관관계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해외거주기간이나 귀국 후 국내거주기간은 본인이 보고한 한국 문화에의 적응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해외거주국 문화에의 적응정도는 6세-12세 아동기 및 12세 이후 청소년기의 해외거주기간과는 유의한 상

표 3. 귀국대학생 집단의 해외거주기간 및 귀국 후 기간과 문화적응양상의 상관

	한국어 능력	문화 적응		문화 지식		정체감	
		한국	해외 거주국	한국	해외 거주국	한국	해외 거주국
총 해외거주기간	-.43**	-.09	.21**	-.26**	.06	.09	.09
6세 미만	-.25**	-.15	.17**	-.07	.05	-.06	.09
6세 이상 12세 미만	-.27**	.01	.14	-.13	.01	.06	.10
12세 이후	-.25**	-.01	.03	-.26**	.10	.13	-.01
최근 귀국 후 기간	.23**	.07	-.04	.27**	-.14	-.01	-.08

* $p < .05$, ** $p < .01$

관관계가 없었으나 6세 이전의 해외거주기간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17$)가 있어 어린 시절의 해외거주가 해당국가 문화에의 동화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지각된 한국문화에 관한 지식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해외거주기간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12세 이후 청소년기의 해외거주기간과는 $r = -.26$ 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최근 귀국 후 거주기간과는 $r = .27$ 의 유

표 4. 귀국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정체감 및 심리사회적 적응지표의 비교

	귀국 대학생 ($n = 181$)		일반대학생 ($n = 185$)	
	남($n = 60$)	여($n = 121$)	남($n = 92$)	여($n = 93$)
SACQ(대학생활적응)	381.18(53.59)	375.42(61.31)	375.61(57.67)	376.16(50.39)
Academic	125.17(22.55)	129.51(23.96)	121.95(22.30)	127.43(25.77)
Social	117.43(18.83)	112.65(22.04)	117.49(22.10)	113.71(19.74)
Personal-emotional	83.35(17.67)	78.40(19.85)	79.97(18.13)	79.60(14.97)
Attachment	95.02(16.65)	92.41(17.33)	96.84(16.23)	95.16(14.51)
CES-D(우울)	11.95(7.98)	15.43(9.88)	15.60(9.43)	15.30(8.19)
외로움	35.83(7.81)	37.27(9.21)	34.75(9.31)	34.25(7.96)
Quality of life	96.17(14.92)	93.24(14.61)	92.32(13.37)	93.49(13.49)
Physical health	26.60(4.65)	25.99(4.55)	26.32(4.42)	26.47(4.37)
Psychological	22.32(4.20)	20.89(4.20)	20.88(4.37)	21.72(3.66)
Social Relationships	10.88(2.29)	10.29(2.13)	10.70(2.169)	11.11(1.87)
Environment	28.17(4.92)	28.82(5.61)	28.03(4.17)	27.48(4.96)

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해외 거주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한국 및 해외거주국에 대한 정체감은 해외거주기간이나 국내거주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귀국 대학생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 일반대학생집단과의 비교

귀국대학생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인이 보고한 SACQ(대학생활적응척도), CES-D(우울), 외로움. 그리고 삶의 질 평가의 네 가지 적응지표를 일반대학생집단과 비교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공변인으로, 위의 네 가지 적응지표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별과 집단에 대한 다변인공변량분석(MANCOVA)을 실시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Wilk's\ Lambda = .954, F(4, 357) = 4.17, p < .01$. 이에 따라 각 적응지표에 대하여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대학생활적응의 총점 및 각 하위척도, 우울, 삶의 질 척도의 총점 및 각 하위척도 점수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로움 척도에서는 귀국대학생집단이 일반대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F(1, 360) = 7.26, p < .01$. 성별과 성별×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 $Wilk's\ Lambda = .991, F(4, 357) = .80, p = .526$; 성별×집단 상호작용 $Wilk's\ Lambda = .987, F(4, 357) = 1.18, p = .318$.

문화적응유형별 심리사회적 적응

귀국 대학생들은 해외성장경험으로 인하여 해외거주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내재화하였을 것이므로 귀국 후에 한국문화에의 적응이 필

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Berry(1990)의 모델에 따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적응과 해외거주국문화적응의 두 척도를 평균점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한국문화적응 평균이상 + 해외거주국문화적응 평균이상(‘통합’ 집단), 한국문화적응 평균이상 + 해외거주국문화적응 평균이하(‘동화’ 집단), 한국문화적응 평균이하 + 해외거주국문화적응 평균이상(‘분리’ 집단), 한국문화적응 평균이하 + 해외거주국문화적응 평균이하(‘주변화’ 집단)로 각각 나누어 각 집단을 인구학적 특성, 해외거주기간, 그리고 심리사회적 적응지표를 비교하였다.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네 개의 집단은 성비 및 평균연령, 해외거주기간 및 최근 귀국 후 국내거주기간 및 부모의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5 참조). 해외거주국을 북미, 아시아, 유럽, 기타의 네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문화적응유형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chi^2 = 18.26, p < .05$. 구체적으로 북미지역 거주자들 중에서는 분리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37%)을 차지하였고, 통합유형이 30%로 뒤를 이었는데 비하여, 아시아지역 거주자들 중에는 동화유형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고(41%), 주변화유형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22%)로 나타났다. 유럽지역 거주자들의 문화적응유형별 분포는 대체로 북미지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문화정체감에서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국과 거주국의 정체감과 문화지식에 대해서 MANOVA를 실시한 결과, 네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Wilk's\ Lambda = .570, F(12, 400) = 7.90, p < .01$. 이어서 각 척도별로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으

표 5. 문화적응유형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 해외거주기간, 문화적응 양상 및 정체감

	통합① (n = 43)	동화② (n = 48)	분리③ (n = 43)	주변화④ (n = 27)	F/ χ^2	사후검증 (Scheffe)
성비(남:여=52:109)	11:32	19:29	11:32	11:16	3.82	
나이	20.93(2.33)	21.63(2.11)	21.81(2.33)	20.81(2.22)	1.86	
해외거주기간	11.02(4.66)	10.08(4.16)	10.77(4.22)	9.93(3.79)	.59	
6세 미만	2.26(2.35)	1.76(1.94)	2.30(2.40)	2.07(2.27)	.56	
6세 이상 12세 미만	4.09(2.15)	3.72(2.14)	4.09(2.11)	3.22(2.15)	1.21	
12세 이후	4.67(3.03)	4.60(2.70)	4.37(2.73)	4.63(2.22)	.10	
거주지역(북미/아시아/유럽/기타)	14/13/8/8	10/30/4/3	17/14/8/4	5/16/3/2	18.26*	
최근 귀국 후 기간	4.41(3.97)	4.95(3.66)	5.23(4.03)	3.65(3.94)	1.07	
교육수준-부(고졸/대졸/대학원졸)	3/21/19	1/27/20	5/17/21	1/17/9	6.79	
교육수준-모(고졸/대졸/대학원졸)	7/30/6	6/34/8	7/27/9	6/14/7	3.66	
한국문화적응	92.44(7.26)	98.21(8.01)	69.56(11.42)	70.26(9.73)	106.45**	③, ④<①<②
거주국문화적응	86.41(8.25)	59.88(11.26)	86.80(7.90)	64.05(10.05)	96.05**	②, ④<①, ③
정체감-한국	20.49(2.73)	20.48(2.78)	17.40(3.82)	15.37(3.48)	21.53**	③, ④<①, ②
정체감-거주국	11.88(4.16)	9.58(3.40)	12.37(4.58)	11.78(4.65)	4.08**	②<③
문화지식-한국	20.72(2.80)	20.25(3.00)	17.88(3.09)	17.89(4.09)	8.90**	③, ④<①, ②
문화지식-거주국	18.09(4.42)	14.90(4.33)	18.16(4.51)	15.89(3.96)	6.14**	②<①, ③
한국어 능력	33.30(3.83)	33.90(3.05)	30.21(4.98)	30.22(5.48)	8.47**	③, ④<①, ②

주. 문화적응점수의 결측치로 인하여 귀국대학생집단 중 20명의 자료가 제외되고 161명만 네 개의 집단으로 나뉘었음.

* $p < .05$, ** $p < .01$

로서의 정체감과 한국문화지식에서 공통적으로 통합유형과 동화유형에 비하여 분리유형과 주변화유형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해외거주국에 대한 정체감에서는 분리유형이 동화유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긍정적이었고, 문화지식에서는 동화유형에 비하여 통합유형과 분리유형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어능력의 자기평가에서도 통합유형과 동화유형이 분리 및 주변화 유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통합유형은 본인이 평가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과 한국문화지식, 한국어능력 등에서 분리유형이나 주변화유형보다 높을 뿐 아니라 해외거주국에 대한 정체감과 문화에 대한 지식에서도 동화유형이나 주변화집단보다 높아 한국과 해외거주국의 문화에 대해서 모두 유대감을 유지하는 다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변화집단은 두 문화에서 모두 유리되어 있는 양

표 6.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정체감 및 심리사회적 적응

	통합① (n = 43)	동화② (n = 48)	분리③ (n = 43)	주변화④ (n = 27)	F	사후검증 (Scheffe)
SACQ(대학생활적응)	392.53(40.85)	384.04(55.54)	373.79(66.16)	338.48(68.94)	5.32**	④<①, ②
Academic	130.12(17.30)	129.83(22.33)	129.65(27.07)	115.44(29.07)	2.76*	
Social	121.00(15.11)	120.06(20.09)	108.42(23.12)	101.04(23.70)	7.78**	④<①, ②
emotional	83.60(15.99)	79.04(19.51)	80.60(21.47)	71.78(18.69)	2.20	
Attachment	99.58(11.60)	96.02(17.09)	89.79(17.63)	83.89(20.51)	6.00**	④<①, ②
CES-D(우울)	11.12(6.76)	13.65(8.18)	15.51(10.10)	20.63(11.34)	6.30**	①, ②<④
외로움	34.44(6.76)	35.43(8.60)	37.47(8.01)	43.15(11.14)	6.60**	①, ②<④
Quality of life	98.91(11.86)	95.10(14.52)	91.88(16.42)	84.37(12.67)	6.26**	④<①, ②
Physical	27.65(4.14)	26.10(4.05)	25.88(5.27)	23.59(4.54)	4.50**	④<①
Psychological	22.40(3.70)	21.35(3.80)	21.00(4.47)	18.52(4.53)	5.09**	④<①, ②
Social	11.14(1.74)	10.60(2.28)	10.33(1.89)	9.04(2.31)	6.03**	④<①, ②
Environment	29.47(4.57)	28.83(5.55)	27.77(6.16)	26.67(4.38)	1.85	

* $p < .05$, ** $p < .01$

상을 보이고 있었다. 동화유형과 분리유형은 각각 한국 혹은 해외거주국 중 하나에만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4개 문화적응 유형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비교한 자료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문화적응유형간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학생생활적응, 우울, 외로움, 삶의 질의 네 가지 적응지표에 대하여 다변인변량분석(MANOVA)을 시행한 결과 집단차이가 유의하였다, $Wilk's\ Lambda = .812$, $F(12, 400) = 2.72$, $p < .01$. 이어서 각 적응지표의 총점 및 하위척도점수에 대하여 단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생활적응의 개인정서 하위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통합유형 > 동화유형 > 분리유형 > 주변화유형의 순서를 보였고, 집단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결과에서는 일관되게 주변화집단이 통합 및 동화집단에 비하여 낮은 적응수준을 보여 주변화집단이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시사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5년 이상 해외거주 후 귀국하여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귀국대학생들의 문화적응 및 정체감 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일반대학생과 비교하였고, 아울러 이들의 문화적응,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국대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 비교적 장기간을 해외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외거주국보다는 한국문화에 더 가까운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과 태도 또한 긍정적이었다. 스스로 보고한 이들의 한국문화에의 적응정도는 해외거주기간이나 귀국 후 국내거주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해외거주국 문화에의 적응정도는 6세 이전의 해외거주기간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발달 초기단계의 해외거주가 해당국가 문화에의 동화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은 해외거주기간 및 귀국 후 국내거주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물리적인 거주기간보다는 개인의 내적 경험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문화적응양상은 해외에서 거주했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북미지역이나 유럽지역에 거주했던 학생들은 아시아지역 거주학생들에 비하여 해외거주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뚜렷했고,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의 해외거주국 문화에의 동화경향이 더 높았다.

둘째, 귀국대학생들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일반대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이나 삶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적 측면에서는 높은 외로움을 보고하였다. 귀국대학생들을 문화적응양상에 따라 한국문화와 해외 거주국 문화에 대한 적응의 두 가지 관점에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볼 때,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한국 문화와 거주했던 외국의 문화의 두 문화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통합유형과 한국문화를 주로 수용하는 동화유형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적응수준을 보였고, 두 문화에

서 모두 소외된 주변화집단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일관되게 낮은 적응수준을 보였다.

5년 이상 해외 성장경험 후 귀국한 대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지고 국내의 대학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 거주 후 귀국한 초중고생들이 국내의 교육환경에 적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권선미, 1997; 김충희, 1996; 정재욱, 주은선, 2003)과도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연구대상과 교육환경의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국내연구들에서는 귀국 직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 비하여, 본 연구의 학생들은 최근 귀국 후 평균적으로 4-5년이 경과하여 국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으므로 귀국 초기의 적응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응의 스트레스는 새 문화권에 진입한 초기 수개월 동안 크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Ward & Kennedy, 1996; Westermeyer, Neider, & Callies, 1989).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구조화된 교육환경에 비하여 대학교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은 이들을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대학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도권 대학 입시에 성공한 집단으로,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 중 국내의 교육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소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성장기를 해외에서 보낸 후 귀국한 청소년 전집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귀국대학생집단이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교

육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집단 내에서 상당한 개인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귀국 후 재적응과정에서의 문화적응 양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귀국대학생 집단 중 한국과 해외거주국의 문화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통합유형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국문화를 주로 수용하고 있는 동화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보이고 두 문화에 대하여 모두 거리를 두는 주변화유형이 상대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이 좋지 않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 내 이민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Sam 등(1995)의 연구, 호주의 중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Zheng 등(2004)의 연구,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송원영 등(2008)의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로, 귀국청소년들의 문화재적응과정도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과정과 동일한 개념적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성장기에 문화간 이동을 경험한 귀국청소년들이 정체감의 차이로 인하여 귀국 후 재적응과정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서구의 TCK 연구들(Fry, 2007; Pollock et al., 2009; Fail et al., 2004)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정체감 해결 양상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이 달라짐을 보여줌으로서 해외 성장경험의 영향에 대해서 보다 더 세분화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귀국청소년들은 해외 성장경험을 통하여 다른 문화에의 적응과정을 이미 경험한 집단으로 귀국 후 재적응과정에서의 문화적응 전략의 선택에는 이들의 해외거주국 문화에의 적응경험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거주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화된 경우, 귀국 후 국내문화에의 재적응에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리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클 것이고, 반대로 해외거주국 문화에의 적응이 순조롭지 못하여 한국문화와의 유대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 귀국 후 국내문화에 재적응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화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국 청소년들의 귀국 후 문화적응은 해외거주경험을 통하여 이미 형성된 문화정체감을 국내에서의 생활경험을 통하여 재확인하거나 변용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응 전략의 선택은 또한 상황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정진경 등(2004)은, 상황에 따라서 문화적응전략의 적응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발달과정에서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류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거나 가치를 두는 경우, 통합전략이 선택이 용이해질 수 있는 반면, 주류문화에의 동화를 강조하는 경우, 통합전략의 선택은 제한받게 된다. 국제화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특히 대학 내 문화는 귀국대학생들이 통합전략을 선택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귀국 후 한국사회에의 재적응 과정은 이들의 한국문화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을 것이고, 이에 덧붙여서 해외에서의 성장경험을 통하여 내재화한 외국의 문화(특히 영미권의 문화의 경우)는 국내에서 높은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통합적 문화적응 전략은 상당수의 귀국대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이다. 본 연구의 귀국대학생집단에서 북미와 유럽 지역 거주 학생들이 아시아 지역 거주학생들에 비하여 두 가지 문화를 모두 유지하려는

통합유형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한국문화와 해외거주국문화를 모두 유지하고자 하는 통합유형과 달리 두 가지 중 하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동화유형이나 분리유형은 다양한 문화 경험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화유형이나 분리유형은 사후검증에서 통합유형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심리사회적 적응지표에서 일관적으로 통합유형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도 통합적 전략을 취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쪽에 더 비중을 두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등 네 문화적응유형이 해외거주기간, 귀국 후 기간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 및 해외거주국에 대한 정체감, 한국이나 해외거주국의 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한국어 구사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로 볼 때, 문화적응 유형의 선택은 해외거주기간 등 문화접촉의 물리적 차원보다는 각 개인이 자신의 문화접촉 경험을 어떻게 소화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가정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을 유지하는 노력과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유지하면서 해외거주국의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 두 문화를 모두 유지하는 통합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해외거주국의 문화에 동화되었던 경우, 귀국 후 분리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미지역 거주 집단 중에서는 분리 및 통합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달리 아시아지역에 거주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동화유형이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주변화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22%에 달하는 등 해외거주국에 따라 문화적응 유형의 분포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자국문화와 거주국 문화간의 유사성이 문화적응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아시아지역에 거주했던 학생들은 북미 및 유럽지역 거주학생들에 비하여 문화권간 이동에 따른 적응과 재적응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지역 거주 학생 중에서 동화유형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통합유형이나 분리유형은 거주국의 문화에 대한 유대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자국문화와 거주국문화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지역 거주학생들이 서구지역 거주학생에 비하여 통합 및 분리유형의 비율이 낮은 반면 주변화 유형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문화권 간의 이동이 문화적응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이점이 있는 반면 내적으로는 문화정체성 혼란을 가져와 새로운 문화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정체감 정립이 이민자 집단과 귀국청소년집단의 적응에 공통적인 핵심 과제라는 전제 하에 이민자 집단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Berry(1980, 1990, 1997)의 모형

을 귀국대학생의 국내재적응과정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귀국청소년집단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서로 다른 문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집단으로 이들의 문화정체감은 새로운 문화를 처음 접하는 이민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지닐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번에 걸친 출국과 귀국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과 귀국 후 국내재적응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다수의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경우, 특정한 문화에 대한 강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적응적이라고 판단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경험을 가진 TCK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특정 문화에 소속감을 느끼기 보다는 다른 문화적 배경의 TCK 집단과의 공감대를 느끼는 등 그 문화적 정체성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Pollock et al., 2009).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귀국청소년들도 서구의 TCK와 유사한 성장경험을 한 집단이므로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특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 성장경험을 한 후 국내 대학교에 진학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동반한 해외파견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귀국청소년들 중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취약집단이 있다는 것과 이들의 문화적응 양상에서의 특징을 밝힘으로서 이들을 사전에 선별하여 적절한 개입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각 대학에서 세계

화의 방안으로 해외거주 청소년들의 진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제로 이들이 국내 대학 진학 후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귀국대학생들의 약 15% 정도는 한국과 해외거주국의 문화에 대한 유대감을 모두 유지하지 못하는 주변화 유형에 속하였다. 이들은 통합유형은 물론 동화유형이나 분리유형에 속한 대학생들보다 국내에서의 대학생활에의 적응과 삶의 질 수준도 현저하게 낮았으며 높은 외로움과 우울수준을 보고하고 있어 심리적 괴로움도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이 경험하는 적응의 어려움의 핵심에는 정체감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통합적 문화정체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 간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Bennett, 1993)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과 귀국 후 재적응과정, 그리고 정체감 형성은 장기간에 걸친 발달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거주 후 귀국하여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다문화적 성장경험이 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귀국하기 전 해외에 거주할 때 표집하여 귀국의 선택과 국내 재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는 장기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거주경험의 발달단계에 따라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연구대상에 다양한 발달단계의 아동 청

소년을 포함시켜 발달단계별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귀국 대학생들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고 각 문화적응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모집하여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국내 교육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일부 집단에 표집이 국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귀국청소년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문화적응관련 변인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지표들 자기보고식 설문문을 통하여 평가함으로써 이들의 주관적 평가가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요인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언어적 배경이 다양하여 설문지를 한국어와 영어의 두 가지 언어로 구성하여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영어와 한국어 설문지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문지 언어가 응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 및 타인의 평가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와 설문지에 사용된 언어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 청소년기의 해외거주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그리고 귀국 후 재적응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특히 문화적 정체감에서의 차이로 인하여 남다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나(Fry, 2007; Fail et al., 2004; Pollock et al.,

2009), 문화 간 접촉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계화 추세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성장기에 해외거주 경험이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국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 적응의 어려움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해외성장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선미 (1997). 해외 귀국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1999). 해외 귀국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수 (1997). 한국어로 번역된 UCLA 외로움 사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 한국간호과학회지, 27(4), 871-879.
- 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CES-D와 로샤 검사를 통해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2), 41-61.
- 김충희 (1996). 해외 귀국 청소년의 적응과 자아 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3), 571-579.
- 법무부 (200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송원영, 리난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59-173.
- 신행우, 이종한, 한성열, 허태균, 채정민 (2004). 이(異)문화권내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적응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47-163.
- 양현정 (2002).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김영만 (2005).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41-66.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재욱, 주은선 (2003). 해외 귀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29-351.
- 정진경, 조정아 (2008).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487-518.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태연, 김영만 (2004).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에게 미치는 영향: 남한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61-81.
- 채정민, 김종남 (2008).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519-544.
- 채정민, 한성열 (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01-126.
- 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39-69.
- 현진원 (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ler, P. S. (1975). The transitional experience: An alternative of the culture shock.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5(4), 13-23.
- Bennet, M. J. (1993). Toward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R. M. Paige(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2nd Ed., pp.21-71). Yarmouth, M. E.: Intercultural Press.
- Baker, R. W., & Siryk, B. (1989). *SACQ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pp.9-25).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pp.232-253). Newbury Park, CA: Sage.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Fail, H., Thompson, J., & Walker, G. (2004). Belonging, identity and Third Culture Kids:

- Life histories of former international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3(3), 319-338.
- Fry, R. (2007). Perspective shifts and a theoretical model relating to kaigaishijo and kikokushijo, or third culture kids in a Japanese context.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6(2), 131-150.
- Ghaffarian, S. (1987). The acculturation of Iranians in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7, 565-571.
- Goodman, R. (1990). Deconstructing an anthropological text: a 'moving' account of returnee schoolchildren in contemporary Japan. In Ben-Ari, E., Moeran, B., & Valentine, J.(Eds.), *Unwrapping Japan: Society and Culture in Anthropological Perspective*(pp.163-187).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wang, W., & Ting, J. Y. (2008).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2), 147-154.
- McLachlan, D. A. (2007). Global nomads in an international school: Families in transition.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6(2), 233-249.
- Marin, G., Sabogal, F., Martin, B., Otero-Sabogal, R., & Perez-Stable, E. J. (1987). Development of a short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 21-34.
- Pollock, D. C., & Van Reken, R. E. (2009). *The thirds culture kids: The experience of growing up among the worlds*. Nicholas Brealey International.
- Radloff, L. (1977). The CES-D: A self-report symptom scale to detect depress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social Measurement*, 1, 385-401.
- Russel, D., Pelau, L. A., & Cut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280.
- Sam, D. L., & Berry, J. W. (1995). Acculturative stress and young immigrants in Norwa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6, 10-24.
- Suinn, R. M., Ahuna, C., & Khoo, G. (1992).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Concurrent and factorial valid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41-1046.
- The WHOQOL Group (1998).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BREF Quality of Life Assessment. *Psychological Medicine*, 28, 551-558.
- Useem, R. H. & Downie, R. D. (1976). Third culture kids. *Today's Education*, 65(3), 103-105.
- Ward, C., & Kennedy, A. (1994). Acculturation strategi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sociocultural competence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8(3), 329-343.
- Ward, C., & Kennedy, A. (1996). Crossing cult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of cross-cultural dimensions. In J. Pandey, D. Shinha, & D. P. S. Bhawuk(Ed.), *Asian Contributions to Cross-cultural Psychology* (pp.289-306). New Delhi: Sage.

- Ward, C., & Rana-Deuba, A. (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4), 422-442.
- Westermeyer, J., Neider, J., & Callies, A. (1989). Psychosocial adjustment of Amongrefugees during their first decade in the United State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132-139.
- Zheng, X., Sang, D., & Wang, L. (2004). Accultu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nese students in Australi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57-72.
- Zea, Asner-Self, Birman, & Buki (2003). The Abbreviated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 Empirical Validation With Two Latino/Latina Sampl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2), 107-126.
- 논문투고일 : 2009. 11. 29
1 차심사일 : 2009. 12. 30
2 차심사일 : 2010. 02. 26
게재확정일 : 2010. 04. 17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Returnees:
A Study of Korean College Students
with Extended Experience of Living abroad**

Kyung Ja Oh Curie Park Seojin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 total of 181 college students(61 males 121 females) with at least 5 years of living abroad (Returnee Group) and another group of 181 students (92 males and 93 females) without extended period of living abroad (Comparison Group) participated in the study by completing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Acculturation Index,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ES-D, and WHOQOL.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turnee Group,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reported as good adjustment toward college life in Korea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Korean identity, but a higher level of loneliness. When the Returnee Group were divided into 4 different groups on the basis of acculturation pattern, the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Type reported a better adjustment to college life, lower depression and loneliness and better quality of life than the Marginalization Type. The Marginalization Type appears to be the most vulnerable group,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all areas of adjustment, and is clearly in need of interventions.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returnee college student, cultural adjustment, identity, psycho-social adjustment